

보도시점 : 2025. 2. 26.(수) 17:00 이후 / 배포 : 2025. 2. 26.(수)

케이(K)-철도 원팀, 2.2조원 규모 모로코 메트로 차량 440칸 공급사업 수주

- 국토부, 고위급 수주지원과 함께 현대로템·코레일 간 민관 협력의 결실 -

- 정부의 고위급 수주 지원과 한국철도공사(이하 코레일), 국가철도공단, 현대로템 등 민관 협력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'25년 2월 26일(수) 01시(현지시간 25일(화) 16시)에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(ONCF)에서 발주한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 중 통근형(도시 간) 메트로 차량 240칸과 도시 내 메트로 차량 200칸 공급사업을 수주하였다고 밝혔다.
- 지난해 7월부터 모로코는 스페인,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동안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*을 추진해 왔다.
- * ① 고속철 차량(320km/h급) 144칸, ② 준고속철 차량(200km/h급) 320칸, ③ 통근형 메트로(160km/h급) 240칸, ④ 도시 내 메트로(160km/h급) 200칸 등 총 904칸
- 이 가운데 메트로 차량 2종을 우리기업에서 수주한 것으로, 총 수주 금액은 통근형 메트로 1.2조원, 도시 내 메트로 1조원으로 총 2.2조원 규모이다.
- 우리기업이 프랑스, 스페인, 중국 등 경쟁사들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거둔 성과로 정부와 공공기관, 그리고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이룬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장관('24.7월), 2차관('24.10월)이 각각 모로코를 방문하여, 모로코 교통물류부장관과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는 한편, 한국을 방문한

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 장관('24.11월)을 만나 K-철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는 등 집중적으로 고위급 외교지원을 펼쳤다.

- 특히, 과거 해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 적기 납품, 차량 제작 현지화 등 우리기업의 강점을 강조하고,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코레일,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내셔널 원팀으로 기술교류,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발주처의 신뢰를 확보하였다.
- 아울러, 유지보수 자립을 희망하는 모로코 철도청의 니즈를 파악하고, 이를 위해 다양한 철도차량 유지보수 노하우를 보유한 코레일과 현대 로템이 함께 유지보수 기술이전과 교육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 패키지를 제안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우즈벡 고속철 차량 첫 해외 수출에 이어 2.2조원 규모의 모로코 메트로 2종 공급계약 등 최근 성과를 발판삼아 우리 기업의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

- 정부와 코레일, 국가철도공단, 민간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아랍에미리트(UAE) 고속철도 건설사업,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, 파나마시티~다비드 연결 일반철도 건설사업 등 후속 해외사업 수주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철도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현기창 (044-201-3947)
			주무관	김남우 (044-201-4645)

